

포항 스님 방역봉사단


상월 결사 순례 모습



호국 홍제사 착공식 호국불교 근본도량


태고종중정 추대식

아듀! 2020년, 현대불교 선정 10대 뉴스

코로나 국난 극복 원력

2020년 한국불교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데 주력했다. 방역 지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냄으로써 호감도를 높이는 한해였다. 대사회적으로는 불교 문화유산의 재평가와 상월결사의 확대,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진행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사업들이 시작됐다. 한해동안 한국불교 주요 이슈 10개를 선정 ·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

1. 코로나, 불교에 화두를 던지다

'코로나19'는 2020년 한국사회를 관통한 이슈다. 이는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한달 연기됐으며, 연등회는 취소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선제적 방역에 나섰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는 한국불교에도 화두를 남겼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시대의 신행 · 포교를 비롯해 사찰 재정의 다각화, 종교로서 사회적 역할 등은 앞으로 불교가 고민할 시대적 과제다.

2.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2020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슈였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까지는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18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간 등재를 위해 연등회보존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원행 스님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상월결사 한해동안 이어지다

붓다의 길을 따라 걷는 고행의 발은 인욕의 상징이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10월 7일 대구 동화사서 시작해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21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장장 511km에 달하는 이 길 위에서 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도반이자 국난극복의 첨병이 됐다.

만행결사 자비순례에서 순례단은 매일 30km를 걷고 밤에는 노숙과 다름없는 텐트에서 잠을 자며 씻지도 못하는 고행을 자임했다. 길위에서 중생의 안락을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과 그 제자들처럼 순례단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해 매진했다.

회향도 잠시, 한 달이 지난 11월 28일. 만행결사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불자들의 노력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11월 28일 본 · 말사 걷기명상 성지순례를 개최한 것이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가 동안거 후 걷기순례, 상월선원 결사대중이 내년 10월 경 삼보사찰 순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코로나 극복과 국민 화합에 대한 불자들의 바람이 걷기순례란 새 문화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상월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4. 조계종 종단 불사 본격화

2020년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종단 주요 불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해였다. 우선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 결집불사 핵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기공법회가 12월 29일 봉행된다. 인도 분황사에는 전통한옥 양식의 대웅전과 숙소,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세워진다.

지난 6월 17일에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포교 거점이 될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이 진행됐다. 전월산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대지면적 16,000㎡(4,840평) 부지에 세워진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연면적 5,495.96㎡(1,662.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1월 24일에는 육해공군 3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 호국 홍제사 불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만 3200여 평 대지에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는 대웅보전이 들어서는 법당이 연면적 700여 평, 교육연수시설로 만들어지는 교육관이 연면적 250여 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문폐쇄 · 연등회 취소… 'B-방역' 빛났다

2020 종단 결산

부처님오신날 행사 한달 연기
종단들 코로나19 방역 안간힘
조계종 주요불사 일제히 첫삽
태고종 새종정 추대 등 안정화

2020년을 풍미한 '코로나19'의 여파는 한국불교도 비켜가지 못했다. 지난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오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한달여 만에 유행으로 번지자 조계종 총무원은 2월 20일 전국 사찰에 긴급대책과 지침을 공지했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산문을 폐쇄했고, 대부분의 사찰은 법회와 성지순례를 중단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전국 사찰서 이어갔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즈음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한 달 연기한다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 뒤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들은 결국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봉행을 취소했다. 연등회 행사가 취소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렬이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이다.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지난 3월 불교계가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 달 뒤로 변경한 것과 같이, 오늘의 위기가 하루 속히 종식돼 모든 국민들이 평안해지기를 발원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불교계 각 종단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올 한해 불교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Buddhism-방역'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불교계에 노력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불교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특히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뒤로 미뤘고 천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K-방역'의 근간으로, 이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상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각 종단들은 주요 불사와 사업들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조계종의 경우 백만원력 결집불사 주요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포교당 분황사, 계룡대 영외법당 홍제사와 세종시 포교 거점으로 활용될 광제사 ·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불사들이 일제히 첫 삽을 떴다.

전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으로부터 비롯된 태고종의 내홍은 편백운 스님의 멸빈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마무리됐다. 이후 태고종은 새 종정으로 지허 스님을 추대하고 정체성을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안정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차별금지법 제정 주도…기후위기 대응

2020 사회복지 결산

아신 빤딧짜 스님 범계와
개신교인의 사찰 방화 등
사건 사고 충격도 이어져
비대면 복지의 문화 확산

올해 불교계는 코로나19로 대사회 활동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기후위기 대응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등 일부 단체에 집중된 양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긴밀한 연대를 토대로, 코로나19에도 릴레이 기도법회 및 오체투지 법회를 이어가는 등 21대 국회 및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밖에도 무연고 사망자, 제주 4 · 3사태 희생자, 5.18사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코로나19 희생자 등을 추모하는 기도법회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했으며, 간호사 태움문화 희생자인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진숙 노동자 복직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등 사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도 전개했다.

불교환경연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기후행동 발족도 눈에 띄는 사건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됐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활동은 미진했던 상황에서, 불교기후행동의 발족은 범불교적 기후위기 극복활동을 이끌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충격적인 사건 사고도 이어졌다. 미얀마 담마야나 선원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행위가 本紙 단독보도로 드러나 불교계 안팎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고, 개신교인의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특히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은 그동안 지속돼 온 개신교계의 훼불행위를 재차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주류 기독교계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불교계 복지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기간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지역사회 약자를 위한 도시락 배부와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져 주목됐다. 일부 복지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튜브, SNS 등 비대면을 통한 복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행사나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소외감 · 우울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화분이나 만다라 그리기 키트 등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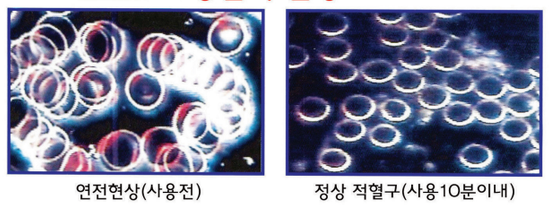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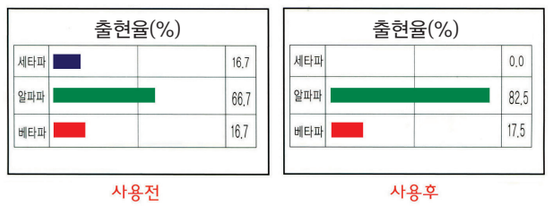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